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431만·439만원

(소형)

(중대형)

건교부, 분양가 상한제 기준 마련...건설업계 "현실 무시한 가격"

오는 9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주택 기본형 건축비 기준이 마련됐으나 건설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3.3㎡(평)당 기본형 건축비가 소형은 431만8천원, 중대형은 43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각각 2만6천원(0.5%), 2만7

천원(0.6%) 낮아진 것이다.

또 바닥재·벽지·주방가구 등 마이너스 옵션 품목을 선택할 경우 15%가량 분양가가 낮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형 건축비를 공개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가 제시되기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8년만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

지에 건축비·가산비용을 더한 것으로, 현재 공공택지의 기본형 건축비는 중 소형 434만4천원, 중대형 441만8천원이다. 향후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건축비를 상하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바닥재·벽지·주방가구 등의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분양가는 15% 가량 낮아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자들

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 바닥재·벽지·위생기구·욕실인테리어·주방가구·조명기구 등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현행 공공택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분양

가 인하는 곧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광주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름다운 조경의 고급 아파트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며 "저품질의 '불어빵' 아파트가 양산됨으로써 기존 고급 아파트의 값이 전정부지초치솟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9월 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12월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구직자 66% "취직만 된다면 비정규직도 좋다"

상당수의 구직자들이 일단 취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비정규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구직자 1천 41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는가' 설문한 결과, 66.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는 '고용형태보다는 취업이 더 급해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31.5%),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20.8%),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5.0%)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해서'(37.2%)나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아서'(36.1%)를 비정규직 취업거부 이유로 밝혔으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아서'(11.9%), '고용특성상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6.5%)라는 의견도 있었다. /연합뉴스

코스피 장중 대망의 2,000선 돌파

저평가 해소...선진증시 개막

기간조정 거친후 재상승 기류탈 듯

코스피지수가 24일 장중 한 때 대망의 2,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장을 열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001.52로 2,000선을 돌파한 후 3분여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0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차익매물에 밀려 1,977.45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나뭇잎 만회해 전날 대비 0.79(0.04%) 포인트 하락한 1,992.26으로 마감했다.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선진증시 개막=코스피지수가 1,000선 돌파후 18년만에 2,000선을 터치한 것은 증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저평가 문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불안과 불투명한 기업회

계 등으로 인해 여타 선진시장들에 비해 저평가됐으나 2,000 돌파로 저평가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2개월 기업이익의 기준 주가이익비율(PER)은 한국이 13.4배로 선진시장 평균인 13.6배와 비슷해져 한국시장이 싸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코스피지수 2,000돌파는 산업포트 폴리오의 균형 회복, 가계 자산배분의 정상화, 선진증시로의 조기 편입 기대 등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종전까지 국내 산업은 정보기술(IT) 중심이었으나 최근 조선·기계·건설·철강 등이 부각되며 신경제와 구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는 운용자금을 은행예금이나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해지고 있다.

시가총액이 1천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규모면에서 선진증시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원은 "2,000선 돌파로 한국증시가 더 이상 가격매력은 없어졌지만 증시의 위상이 제고되고 선진증시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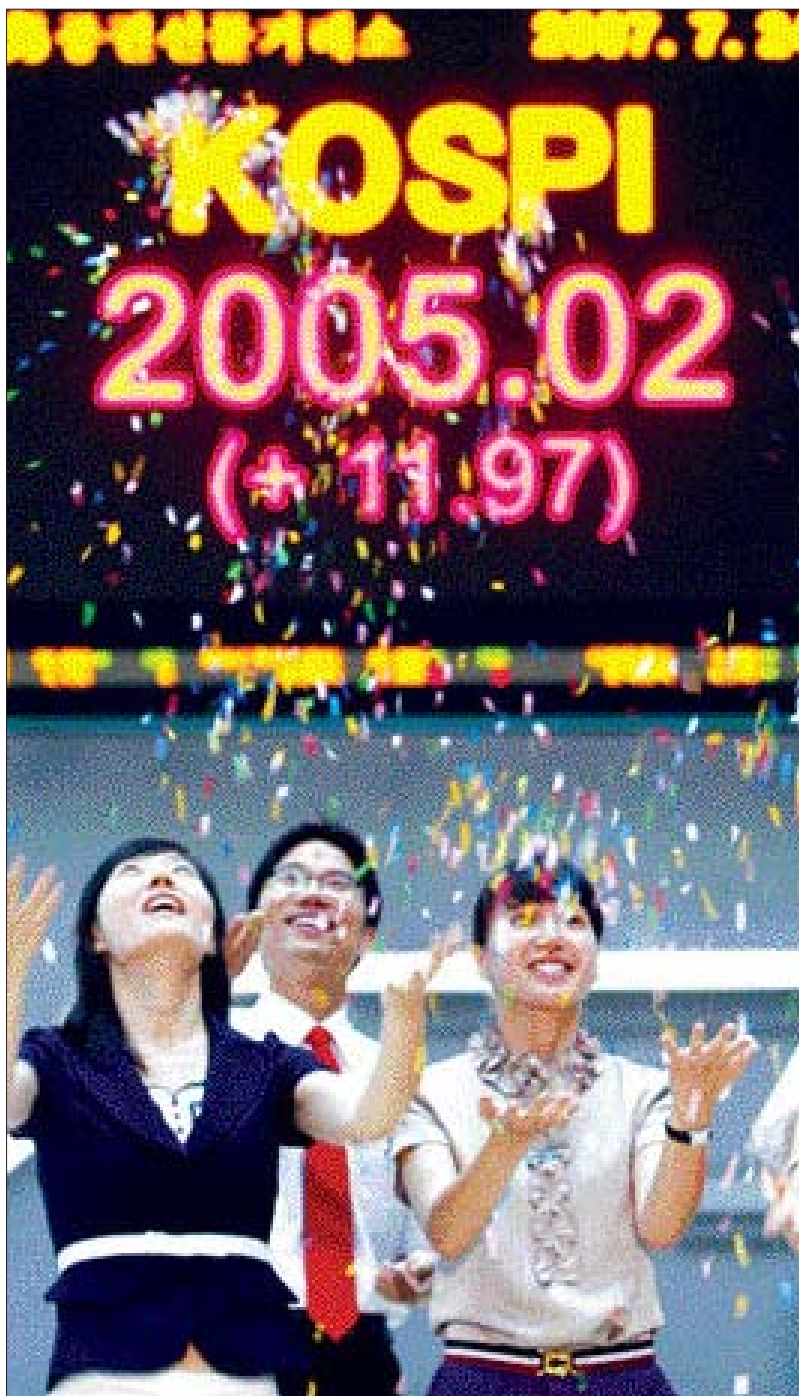
▷기간조정 후 재 상승 전망=코스피지수 2,000선은 단기적으로 휴식을 위한 중간 종착점의 역할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상승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의 수급상황이 좋아 가격조정보다는 기간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에너지를 재충전한 후 다시 상승엔진을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현재의 증시상황을 감안할 때 1,900선 초반에서 매매공방은 벌어질 수 있지만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900선이 깨지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갇혔을 잃은 자금으로 드러난 만큼 최소한 대통령 선거때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중 한 때 코스피지수 2000을 돌파한 24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축하 세리머니가 열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992.26 포인트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글로벌 무한 경쟁 혁신·창조로 활로 찾아야”

조석래 전경련회장



조석래 전경계연연합회 회장은 24일 “글로벌 경쟁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혁신과 창조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7 제주 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기술력이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는 국내에서 경쟁하면 되던 것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바뀌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아시아 15개국중 일본을 빼면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경제규모도 2004년에 세계 11위였던 것이 2005년에는 12위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13위로 내려앉았을 뿐 아니라 브릭스(BRICs) 국가가 우리를 다 추월했고 멕시코마저 우리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혁신과 창조를 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장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직장인 점심 식사대화 소재 男 ‘시사’ 女 ‘뒷담화’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때 동료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24일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www.opensalary.com)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직장인 2천66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때 주된 대화의 소재’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은 ‘최근의 시사문제’(33.0%)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회사 내 상사, 동료, 후배직원 뒷담화’(24.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 직장인의 경우 ‘뭣다른 업무 얘기’(17.9%), ‘회사 내 직장, 동료, 후배 뒷담화’(11.7%) 등의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개그 프로그램이나 유행어, 연예계 뉴스’(19.7%), ‘뭣다른 업무 얘기’(17.3%)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 100억달러 육박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 금액이 100억달러에 육박하며 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정유업체들의 경유·항공유·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금액은 99억4천 538만달러로 작년 동기의 87억7천641만달러에 비해 13.3% 증가했다. 수출물량도 1억3천726만배럴로 11.4% 늘어나면서 물량과 금액 측면에서 모두 기록을 세웠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24억4천465만 달러)과 미국(20억7천771만 달러)과 일본(16억5천253만 달러)인데 중국은 주로 경유와 방카C유·나프타·항공유 등을 가져갔고 경제시설 고장으로 어려움

을 겪었던 미국은 휘발유와 항공유를, 일본은 윤활유 등을 포함해 고르게 수입해갔다.

품목별 수출액은 경유가 35억2천581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항공유가 28억8천 357만 달러, 나프타가 10억8천534만 달러 순이다. 나프타는 수출금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75.4% 늘어나며 가장 호황을 누렸고, 세계적인 항공 운송산업의 호황에 따른 수요 확대로 항공유 수출도 41.6% 늘어났으며 아스팔트와 경유는 각각 33.2%, 24.4% 증가했다. 다만 휘발유는 상반기 내수 소비량이 3천18만 배럴로 작년 동기에 비해 4.9% 늘어난 여파로 수출물량은 26.7%, 금액은 23.0%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내년부터 40~60일서 20일까지 줄여

현재 공장 설립까지 40~60일 정도 걸리는 행정처리기간이 내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처리기간이 20일까지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시 필요한 사전제해

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의제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곧 인·허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 절차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사전제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별도 30일(10일 연장 가능),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에 20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설립 무

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을 대행할 경우, 처리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됐다. 공장설립에 관한 지자체의 불필요한 지연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활성을 위해 개발중인 산업단지 내 지정근거도 마련되고,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리기업의 북향지역내 경영활동과 산업단지 입지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명시된다. /연합뉴스

권부총리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질적 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

사 스스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고용보완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전직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로 새로운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코노미스트 최근 기사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광주공과대학원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7/25	062-369-0790
(주)보고정보	공공기관 전략기획(기술영업 포함) 인력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7/27	061-722-9035
헤어킷토	정규직 디자이너(웹디자인/POP/디자인출력)	대졸/경력무관	1400~2000	07/28	062-232-3774
에이에스엘 퍼시픽 케이오알	총무 및 자재 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973-4174
맥스타	편집디자인, 출력, 인쇄 사원	고졸/경력1년	1000~1200	07/30	062-224-2783
스타일웨이	[패션소품물100부트] MD/마케터/사이트운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717-5018
엘지전자 (주)호남센터	LG전자 서비스센터 취업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510-6190
(주)컴이조아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30	062-233-0063
(주)동일철강	건축 및 토목분야 CAD 여성 업무보조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944-8877
한샘인테리어 사무점	매장관리 및 판매(가구류)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30	062-385-4800
(주)태창공업	경리, 생산관리, 용접, 사상, 가공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956-2413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전자종 판매전시점]정규직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653-0051
태정산업(주)	인원 수행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53-2300
이펙스산업개발(주)	현장책임자, 공무원업무 가능자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8/02	062-573-6730

2040년 인공태양 발전소 가동 과기부 핵융합 에너지 청사진

우리나라가 오는 2021년께 핵융합 에너지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하고, 2040년대에는 ‘인공태양’으로 가동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30년간의 핵융합 에너지 실용화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기 본계획안’을 마련, 다음달 2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핵융합 에너지란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 ‘인공태양’을 건설한 뒤, 이로부터 얻는 무한·청정·고효율 에너지를 말한다.

기본계획안은 30년간 3단계의 추진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